

# 장흥초, 유튜브·줌으로 온라인 교육 과정 설명회 개최

###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전·시도로 큰 호평 실시간 댓글 기능 이용...질문 받아 답변하는 방식 진행

장흥초등학교는 지난 18일 유튜브(Youtube)와 줌(Zoom)으로 온라인 실시간 교육 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학교마다 교육과정 설명회가 생략되거나 안내장으로 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장흥초등학교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육 과정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로 호평을 받았다.

학생 수 771명의 대규모 학교임을 고려하여 온라인 실시간 중계 시스템인 유튜브 스트리밍을 활용하여 학교 교육 과정 안내와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쌍방향 소통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학부모의 질문을 받아 진행 중간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과정 설명회를 구현했다.

2부 순서로는 온라인으로 선출된 학부모회 임원을 중심으로 학부모총회를 개최하여 더욱 적극적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유도했다.

이어진 3부에서는 32개 학급별로 개설된 줌(Zoom) 회의방에서 담임교사의 교육 철학 및 학급 교육 과정 안내, 학부모와의 온라인 소통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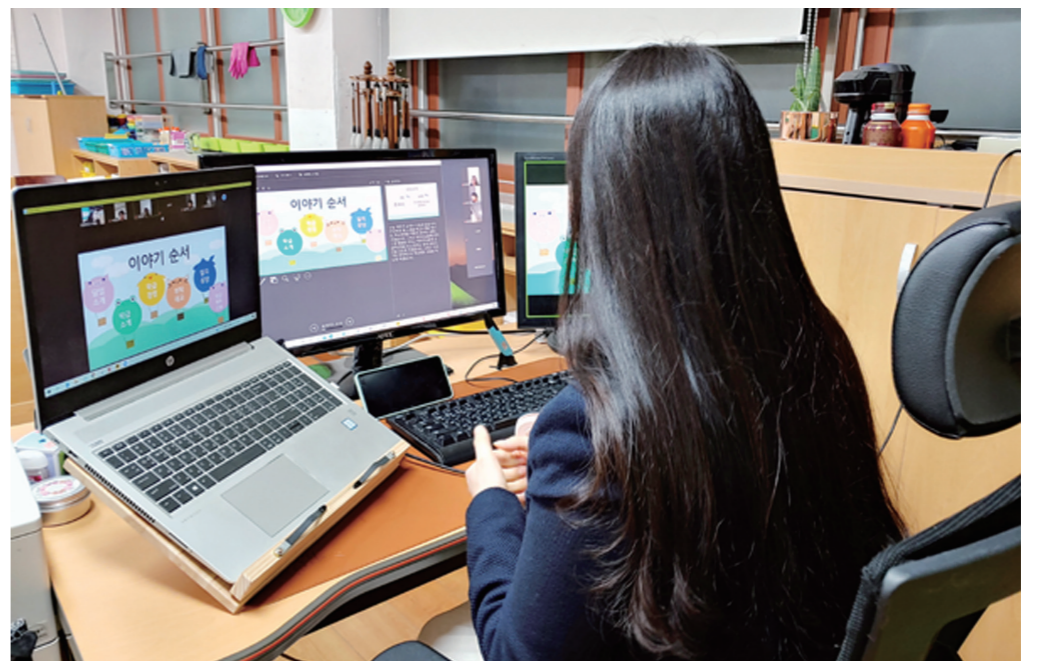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모 학부모는 "직접 학교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

다"며 "온라인 실시간 중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오히려 대면 집합으로 참여할 때보다 더 이해하기 쉬웠다"며 온라인 교육 과정 설명회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날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한 권은희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급변해 가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학생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 학교의 여러 행사들도 시대의 변화와 학부모의 요구에 걸맞게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 과정 설명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 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실시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투표(5명 선출에 7명 출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총 선거인 수 555명 중 39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0.9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시대임에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학교와 학부모가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장흥=김도영기자



## 진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해당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워킹 스루(Walking thru) 방식으로 진행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포)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해당 학생자치회 학생들과 함께 워킹 스루(Walking thru) 방식으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지난 15일 진도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진도 관내 17개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선제적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한 다양한 구성의 배너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유형·사이버폭력의 문제점·학교폭력의 대처요령을 담고 있으며,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설치된 배너를 지나가면서 읽어보고 자신의 소감을 메모장에

적어 함께 모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진행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진도초등학교 학생회장은 "교실에 앉아 듣기만 하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활동 중심의 워킹 스루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학생자치회에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문포 교육장은 "학교폭력을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순천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 위원 위촉

###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활동 본격 재가동

순천시(시장 허석)는 최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전남 동부권 100만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활동을 본격 재가동 한다.

허석 순천시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교육기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의대유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책 발굴, 유치 관련 자료검토 및 자문 역할을 수행 하는 등 다방면에서 순천대 의대유치에 협력하고 지원하게 된다.

시는 작년 7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 당시,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방침이 결정된 후 순천대 및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활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해 왔다.

지난해 11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치 활동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치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대유치 서명운동에 동부권 주민 50만명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이러한 행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대에 의대가 신설되면 전남 동부권 시민뿐만 아니라 200만 전남도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인근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산업재해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전남 동부권이 보다 안전한 산업 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의대 신설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29만 순천시민 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 100만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준비해 나가겠다"며 "의과대학 유치가 낙후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순천시가 안전하고 편안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무안교육청, 대화와 토의로 시작한 교(원)장 회의 개최

### 학교 현안 사항·무안교육지원청서 지원해야 할 사항 등 토의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1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 속에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첫 교(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학교 현안 사항과 무안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 그리고 지역 공동 현안 사안에 대한 교(원)장 선생님들의 자유로운 토의와 2021년 무안교육의 주요업무에 대

한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유치원과 작은학교 연계 프로그램의 다양성 추구, 학부모회 운영의 내실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 사항, 미래형 통합운영 학교 추진 등 교육과정 운영부터 무안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더 나은 무안교육을 위한 토의 시간

을 가졌다.

김란 교육장은 "오늘 이 자리의 고민들이 훗날 아이들 삶에 긍정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교(원)장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무안교육지원청은 현장의 사소한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기성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